

진화론은 어떻게 조선에 유입되었는가?

이병훈^{1*}

Abstract: Two evolutionary theories were involved with the subject title, 'How Evolutionary Theory was flowed to Korea' and they are expected to deal inclusively with how they came to the three Far Easter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in connection with Confucianism in common by tradition. However, Social Darwinism appeared almost simultaneously with biological Darwinism. Exploring document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I found that Herbert Spencer's Social Darwinism with the slogan 'Survival of the Fittest' worded as 'The Superior Gains and the Inferior loses' thrived in Korea hitting hard the Korean ideology, in danger of losing the country to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slogan was dreadful to Koreans but, in contrast, encouraging and backing up a strong enlightenment movement sweeping over the country hoping to make it a strong independent country. Looking for the first mention of biological Darwinism I was able to pick up some words from a ten-day newspaper <Hansung Sunbo> as of March 8th, 1884. Next came three years later, an article from a weekly <Hansung Jubo> as of March 7, 1887, found to be describing evolutionism of Lamarck and Darwin briefly, limited to one page. It is, however, the first indication of scientific as well as biological Darwinism documented as ever in the country. However, this article even as part of the biological Darwinism was outdated by only three years by Japanese (人祖論 1881) from Darwin's <Descent of Man>. By contrast It got ahead 14 years of Yen Fu's Tianyuan lun (天演論 1898) in China. In quality, however, the Korean's is nothing but a few words or an article but those in the two neighboring countries are by books. So, Korea is certain to be far behind the two countries in getting in touch with Darwinism. The year 1926 the summary of <The Origin of Species> appeared in a newspaper DongA Ilbo.

It was in 1958 when <The Origin of Species> was first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n. In the same year, which happened to be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Darwin's <Origin of Species> was celebrated all over the world and in South Korea as well with a Symposium by the Biological Study Group,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¹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Corresponding author: ybhoon7@hanmail.net

다위니즘이란 무엇인가?

영국의 자연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 1859년에 <The Origin of Species>를 출판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다윈과 다른 이론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진화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그리고 유전적 부동과 같은 무작위적인 변화로 이뤄진다고 말하는 한 모두 다위니즘이라고 불렀다. 더 나아가 인류 문화의 특성이나 행동 그리고 사회 발전도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메커니즘을 따른 것이라면 두루 다위니즘이라고 부른 것이다

다위니즘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완고한 유신론과 자연신학의 벽을 무너뜨리며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장구한 시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기계론이자 유물론이기도 하다. 당시 진화를 이끈 메커니즘은 자연선택이었다. 다윈을 자연선택으로 이끈 동기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관찰된 변이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동기를 ‘당연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나는 가축사육에서 변이, 변종, 신종 형성의 원인을 ‘자연’에서 ‘발견’ 하였다는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비약적 발상이요 경이로운 발명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는 물론 인류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자연과학은 물론 모든 인문·사회과학에 미쳐 뉴턴이 물리학에 미친 영향 못지않게 크고 넓었다. 그러나 다위니즘은 영국의 또 다른 자연학자인 월리스(Alfred Wallace 1823-1913)와 공저로 발표되었던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선택설로 말하면 다윈이 20년 이상 꾸준한 관찰과 숙고로 이끌어낸 결론인데 비해 월리스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과 동남아시아 열대에서 끈질기게 관찰하고 비교 분석한 끝에 불과 몇일 만에 떠올린 발상이기에 두 사람 사이가 사뭇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그의 공적이 다윈의 그늘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나 월리스는 ‘Darwinism’ 이란 말을 처음 만들고 이것을 제목으로 책 <Darwinism> (Wallace 1889)을 저술하였을 정도이니 그의 실력은 물론 인간성과 포용력은 가히 감탄을 자아낸다.

다위니즘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자연학과 유전학 그리고 고생물학이 관찰과 실험적 자료에서 통일성을 이뤄내고 <Modern Synthesis of Evolution> (진화의 현대적 종합)으로 집대성되어 Neo-Darwinism으로 불리고 있으나 그 후에 특히 분자생물학의 혁명과 진화발생학의 경이로운 운영과 패턴들을 보면서 생명체 진화의 메커니즘이 나타내는 현란한 연출로 복잡성과 함께 단순성을 보여주어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말하자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전자와 유전인자들을 새로 만들어 반응하기보다 기왕의 것들을 여기 붙였다가 저기로 옮겨 써먹는 일종의 ‘공작실’ 구실을 하며 적응하는 것이다. 더욱이 다위니즘은 행동학,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 진화의학 등으로 확장,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 분야까지 적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거의 모든 학문을 꿰뚫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진화에 유전적 부동(浮動 drift)이 과연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가?(Coyne et al. 1997), 엘드레지(N. Eldredge)와 굴드(S.J.Gould 1941-2002)가 말하는 단속평형설(斷續平衡說 punctuated equilibrium)을 다위니즘으로 쳐도 좋은가? 그리고 선택의 단위를 다윈은 개체로 보았으나 유전자 또는 그룹으로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한편 지금까지 생명의 나무(tree of life)를 계통수(系統樹 phylogenetic tree)로 표시해왔으나 오늘날엔 유전자의 수평이동이 많이 알려진 마당에 앞으로는 ‘그물 생명 나무’ (network-like tree of life)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 등으로 아직 토론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의 진화생물학은 어떤 패턴과 메커니즘을 펼쳐 보이며 일찍이 다윈과 월리스가 자연관찰에서 맞닥뜨린

경약과 탄복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으로 장대한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인가 자못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조선에 들어온 진화론을 다룰 차례다. 그러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다윈의 진화론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으나 전자가 먼저 들어와서 조선의 사상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니 역시 사회진화론을 먼저 소개해야 할 것이다.

사회진화론이란 무엇인가?

인류문화의 밑바탕에는 생물학이 있고 문화와 생물 모두 장시간의 걸쳐서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서 뻗어 나온 것이란 점에서 생물계와 문화는 사실상 비슷한 진화 메커니즘, 즉 자연선택의 산물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었다(Strickberger 2000).

영국의 철학자이자 생물학자이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물리적 세계, 생물, 인간의 마음, 인간의 문화와 사회 모두에 진화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는 저서 <Principles of Biology> (Spencer, 1864)에서 ‘최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이란 용어를 지어냈으며 다윈은 이 용어가 ‘자연선택’의 의미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보고 저서 <The Origin of Species>의 제5판에서 이 용어를 썼다.

스펜서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나 국가 모두를 각기 유기체(organism)로 보았으며 따라서 다윈의 생존경쟁과 자연선택 이론이 인문학 분야인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에 널리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펼쳤다. 그러나 다윈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을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 끌어드려 일반화시킨 것은 당시로서는 그의 왜곡된 편견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스펜서는 다윈의 진화가 거의 모든 학문을 관통하는 통일적 원리이자 종합의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19세기 전반을 산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에 ‘social evolutionism’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말을 썼으나 실증주의자로서 사회학의 발전을 의미한 말이었다. 반면에 스펜서는 다윈의 책이 나온 후에 콩트의 ‘social evolutionism’ 과 비슷한 ‘social Darwinism’ (사회적 다윈니즘)을 제시하고 앞에 말한 우주적 진화론을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용어는 비슷하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기존의 동아시아 학자들이 ‘social Darwinism’ 을 도입할 당시 ‘사회적 다윈주의’ 가 아니고 ‘社會進化論’ 으로 옮겼음으로 우선 이를 따르기로 함).

사회적 진화론은 말하기를, 우선 인간의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선택 때문이다. 다음, 사회에 여러 가지 계급이 생기고 국가들 사이에 경제나 군사적인 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진화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강자가 성공을 거둔 것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약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즉 성공은 곧 우월성의 증거라는 것이다.

스펜서는 생존경쟁과 최적자선택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획득형질의 유전은 사회의 진화에도 가능한 원인이 되고 이러한 과정은 곧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성에 이르게 하여 비로소 ‘빅토리아 사회’ 라는 찬란한 문화적 정점 즉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정점에 오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스펜서는 ‘Social Darwinism whereby superior physical society shapes history’ 라는 나름대로의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윈의 진화가 어떤 목표나 완전을 향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진화 즉 다윈니즘에 반(反)하는 목적론을 말하므로 다윈니즘에 위배된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은 가장 경쟁력 있는 자에게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두고 이를 차지하려 개체들 간에 경쟁을 벌인다는 다윈의 사상을 인간 사회에도 적용하여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더 나아가 스펜서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타고 개인 간, 종족 간, 국가 간이건 태생적인 강약에 따라 빈부가 결정된다는 결정론으로도 발전되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에서의 빈부의 차이뿐 아니라 전체주의에서 강자와 약자의 우열관계를 당연시하는 풍조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부유한 자본가들에겐 호재(好材)와 명분이 되었다. 예를 들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Jr.) 2세는 아버지가 많은 소기업들을 흡수해 거대한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차린 것을 두고 “대기업의 성장은 그저 최적자 생존 논리 덕분” 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결국 다윈주의의 이와 같은 ‘왜곡’은 인종주의, 종족살해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의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한층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이며 사회학자이고 유전학자인 갈턴(Francis Galton 1822-1911,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1731-1802)은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을 창시하자 급속도로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 나갔다. 한편 극동의 일본은 ‘천성이 양육을 넘어선다’는 믿음에서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는 열성 인간의 생식을 막고 우수한 인간을 체질적으로 개선해 내려는 목적에서 제국 내 최초로 Jinsei-Der Mensch 또는 人生이라는 우생학 잡지를 냈다.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강제 동원된 노무자들을 열등 인간으로 보고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본 일본인은 조선에서 동원되어 일본에 와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못하도록 제지함으로써 일본인의 ‘체질 악화’를 예방하려 하였다.

사회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개량하자는 제안들이 도처에서 튀어나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극단적으로 실현된 사례를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독일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으니 ‘인종 건강 캠페인’을 벌리며 나치는 6백만 명의 유대인을 열등한 종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종 청소로 말하면 1915-1939년 사이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이 살해된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1920년대에 미국에서는 동유럽과 남유럽 출신자들을 열등하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이민법(移民法 immigration act)을 시행하는 일도 생겼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적 계층제 형성에는 과학적 기초가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우월한 계층에 있거나 그 계층에 오르기를 갈망하게 되었고 또한 신분 상승에 이미 성공한 개인이나 그룹에게는 사회진화론이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로 다가왔다.

실상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생존경쟁이 자기 향상을 촉진하고 그 결과가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식 사상에 따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가짜과학’(pseudoscience)으로 전락한 터여서 사회진화론이 이제는 ‘지나간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사회생물학이 사회진화론에 대한 반기에 반기를 든다

그러나 오늘날 생물학의 일각에서 자라온 사회생물학(sociobiology)에서 사람의 행동이 생물학적 기초 없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견이 알려지다가 하면 인간의 사회적 특성도 생물학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정, 성, 근친상간 금기(禁忌 taboo), 아기 돌보기, 외부인 기피 등의 사회적 행동 패턴은 생물학적인 동기부여로부터 나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특징들은 어떤 인류집단에 속하느냐나 어떤 문화적 배경에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Strickberger 2000).

이제 사회진화론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종래에 ‘가짜과학’, ‘부패한 다윈주의’로 딱지 붙었던 자리에서 한층 물러나 다시금 새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때 절대시 하던 주장이나 사상이 새로운 발견과 사고적 전환에 따라 세계관이나 생명관이 송두리째 바뀐 사례는 갈릴레오(Galileo Galilei 1564-1642)나 다윈 말고도 많으며 가깝게는 1950년대의 ‘분자생물학 중심원리’(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도 절대적이었으나 20여년 후에 바이러스에서 RNA의 역전사(逆傳寫 retrotranscription)가 발견되자 그렇지 못한 원리가 되고 말지 않았던가! 독일의 바이스만의 생식질설(Germ theory)과 바이스만 장벽(Weismann Barrier)도 오랫동안 기세가 당당했으나 마찬가지로 운명을 겪었다. 그러나 스펜서의 활동은 한때 워낙 활발하고 그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의 양 대륙에 걸쳐 압도적으로 ‘유행’하여 스펜서는 말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역설 아닌 역설을 낳았다.

사회진화론의 바람을 탄 개화사상

조선에 사회진화론이 들어온 것은 1870년대 중반에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다(전복희 1996). 이러한 간접경로를 밟았던 것은 조선 반도가 양쪽으로 중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형세로 인해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외부와의 통로가 이 두 나라 땅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진화론이 조선 반도에 오롯이 들어왔다기 보다 당시 조선에 꿈틀거렸던 개화사상을 타면서 흘러 들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은 처음 극동에 소개되었을 때 중국에서는 ‘Survival of the Fittest’를 ‘物競天擇’으로, ‘Struggle for Existence’를 ‘優勝劣敗’로 받아들인 반면 일본에선 전자를 ‘適者生存’으로, 후자를 ‘生存競爭’으로 번역되었다(이광린 1979). 나에게도 사회진화론이 동양에 끼친 후환(後患)에 ‘優勝劣敗’라는 잔혹한 표현이 더 큰 화근(禍根)의 씨앗이 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서 개화사상의 성숙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은 사회진화론의 유입이 당시 구미의 열강들이 벌이는 패권적 식민주의가 동아시아에도 뻗고 있는 위협적 상황에서 기울어가는 조선의 현실을 일깨우고 난국을 타개하려는 개화사상가들의 몸부림 속에 불을 지핀 또 다른 바람이었기 때문이다(신용하 1995).

개화사상은 19세기 중엽의 민족적 위기를 당해 나라와 백성을 자주적으로 근대화하고 변혁해서 진보하고자 하는데 쓰인 용어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작아서 오경석(吳慶錫), 박규수(朴珪壽), 유흥기(劉鴻基) 등 수 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선, 오경석이 통역관으로 북경에 가서 2년간 머물며 열강에 의해 붕괴되어 가는 중국의 실상을 목격하면서 충격에 빠졌다, 청국이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하여 홍콩을 내주는 반면 안으로는 청이 기독교를 내세운 태평전국과 15년간 내전(1850-1864)을 벌여 결국 국내외로 피폐해진 것을 목도한 것이다. 그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무기의 발달을 앞세워 아프리카에 식민지 개척 후 동남아시아에 이어 동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바야흐로 전쟁의 암운이 짙게 깔린 이 지역의 위기가 곧 조선에도 불어 닥치리라는 것을 직감하였다(전복희 1996).

개화파들은 중국과 일본에 불어 닥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이 새로운 사조가 강조하는 ‘생존경쟁’이 개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믿고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으려면 중국과 일본이 서양에서 전해 받은 문물과 제도를 재빨리 전수받아 발전시켜야 살아남아 ‘최적자 생존’에

이른다고 다짐하였다. 다른 아님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과 ‘최적자생존’의 슬로건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오경석은 북경을 13차례나 오가면서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고 서양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신서’들을 구입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새로운 과학으로 제작된 세계지도를 비롯해서 자명종(自鳴鐘) 등 여러가지 새로운 문물을 구입해 왔다. 오경석은 안으로는 박제가의 실학을 계승해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자신이 구해 온 신서들을 7년간(1853~1859) 연구한 끝에 조선의 개화사상을 정립하였다. 1860년 영·불 연합군의 북경 점령사건이 발생하자 친우 유흥기에게 신서들을 주며 나라를 구할 방법을 ‘연구’할 것을 권하였다. 이로써 유흥기도 오경석의 견문과 새 사상을 듣고 신서들을 연구해 개화사상 계발에 힘을 보탰다.

진화적 사상은 1870년대 중반부터 말부터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 특히 1890년대 중반에 조선에 들어온 사회진화론은 ‘황성신문’, ‘제국신문’, ‘독립신문’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졌는데 특히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로 발간된 사설 신문으로 모두 한글과 영어가 혼재된 4쪽의 신문이다. 사회진화론이 많이 소개된 것은 논설위원으로 서재필과 윤치호가 맡았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독립신문은 사회진화론을 빌어서 세계 정세의 현실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가 근대화의 필요성을 계몽하고자 하였다. 이 신문의 논설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우승열패나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적 원리로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알리려고 하였다(전복희 1996).

1890년대 후반에 이 신문의 주필을 맡은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의 논설 내용에는 사회진화론이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윤치호는 미국이 유럽보다 사회진화론에 더 몰들어 과장이 컸던 시기였기에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윤치호는 한국이 생존경쟁에서 이기는 유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을 본받아 문명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이 전제주의와 유교가 문명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는 한국 정부가 개혁에 미온적인데 분개하여 스스로 쓴 일기에서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한국민을 위해서 한국이 문명화된 외국 정부에 의해 지배되거나 문명화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주장까지 폈다(윤치호 1891).

윤치호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전복희는 ‘여기서 우리는 윤치호의 맹목적인 문명화에 대한 열광과 제국주의에 속성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전복희 1996)며 윤치호를 혹평한 것에 대해 과연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우선 윤치호가 남의 지배를 받아 가면서까지 조국의 문명화를 갈구한 것은 당시 조선이 얼마나 후진이고 정부는 얼마나 무능하였기에 독립을 위해서 그는 비굴함을 넘어선, 애절한 우국충정(憂國衷情)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됨을 어쩔 수 없다.

애국 계몽기에 접어들어 중국의 사회진화론은 한국에서의 사회진화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동아시아 자강론(自強論)의 원조(元祖)’로 알려진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의 글은 일본에서 발행된 ‘清議報’에 많이 실렸고 특히 그의 <飲氷室文集>은 한국 독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문 시간에 교재로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일고 있는 개화운동의 후원자로 적극 도왔으며 그는 조선 개화파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애국론(愛國論)을 실었으며 때는 19세기가 끝나는 1899년이였다. 안중근이 만주의 하얼빈 기차역에서 일본의 거물 정치인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1909.10.26.)한 소식을 듣자 감동받아 “남아의 죽음을 어찌 말하리오? 나라의 치욕을 씻지 못하면 어찌 이름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라는 한시(漢詩)를 지었다고 한다(박노자 2004).

애국계몽기에는 학회나 단체가 많이 생겼는데 성격상 정치적이거나 복지단체 등 다양하였으며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계몽에 목표를 두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독립협회가 1896년에 발족한 이후 1910년까지 발족한 창설된 단체의 수는 100개가 넘었다(조항래 1984), (전복희 1996)

개화파들은 사회진화론이 강조하는 ‘생존경쟁’ 이 개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믿었다. 아울러 사회진화사상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진보적 역사관으로 밀받침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양무운동’ (洋務運動: 19세기 후반 청나라 말기에 관료주도로 추진된 군사중심의 근대화 운동.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함)과 일본의 ‘문명개화 운동’ (文明開化運動 일본의 명치시기에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와 제도와 관습이 크게 바뀔을 말함)을 조선의 개화운동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나 개화사상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한자권에서 탈피해 한글 교육에 치중하고 국민 국가(主權在民), 시민사회, 자본주의 경제 및 자주국방이 개화사상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화사상의 영향으로 1904년까지 자주 근대화가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 없지 않다. 개화사상은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 강요에 의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전후에는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사상 운동의 전개로 바뀌어 전개되었다(전복희 1996)

애국계몽기와 사회진화론

한일합방의 치욕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지식인들의 열망은 더욱 간절하였다. 그러나 그 모두가 힘이 없는 데서 온 결과이며 사회진화론은 이러한 패망의 원인을 설명해주었다. 과거에 힘을 기르지 않고 유학(儒學)의 형이상학과 관념론에 빠져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우물 안 개구리’ 였고, 게다가 당파싸움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이 있건만! 그나마 실학을 필두로 개화파가 뒤를 잇고, 나라를 잃은 뒤엔 애국계몽주의 운동이 이어져 대대로 각성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때늦은 반성은 역사가 허락지 않았다. ‘은둔’ (隱遁)의 나라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

다윈의 진화론이 일본과 중국에 도입되다

우선 다윈의 진화론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전파된 것은 언제였을까? 일본에선 동경대학이 1877년에 창립되면서 미국의 동물학자 모스(E. S. Morse 1837-1925)가 교수로 부임해 동물학과 진화론 강의(1877-1879)를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진화론을 수강한 제자 이시가와(石川千代松 Ishikawa Chiyomatsu 1860-1925)는 모스의 강의를 열심히 받아써 이것을 정리하여 1883년 4월에 <動物進化論>을 출간하였다. 내용상 진화의 원인과 결과가 빠질 만큼 어설프으나 이 책의 원 저자인 모스의 강의는 일반에 대유행으로 퍼져 나갔다. 어쨌든 다윈의 진화론(이하 다위니즘)은 일본의 자연학자들에게 ‘신에 의한 인간과 기타 생물의 창조를 부인’ 하는 과학적 이론으로서 큰 충격이었으나 일본에 다위니즘이 연구되는 시발점이 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일본에는 종(種)이나 계통발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물론 다위니즘에 나오는 고생물학이나 지질학, 비교해부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위니즘 도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스펜서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 선풍적 인기를 타는 바람에 비로소 다위니즘이 수용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어쨌든 18세기의 생물학의 주류는 분류학을 중심으로 자연학(natural history) 수준에 머물렀는데 일본에 근대 생물학이 출현하게 된 것은 191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고 비로소 다위니즘을 음미할 수 있었다(Shimao 1981).

그러나 이시가와가 모스의 강의를 받아써 1883년에 <動物進化論>을 출간하여 다위니즘이 일본에 알려졌다고 하나 그 훨씬 전에 다윈의 <Descent of Man>이 번역본 <人祖論> (神律尊三郎 1874)으로 출간되고 토마스 헉슬리의 <Lectures on the origin of species> 가 슈지 이자와에 의해 번역되어 나오는 (1879)등으로 일본에 다위니즘 출현은 훨씬 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윈의 <Origin of Species>가 번역되어 출판되기는 Senzaburo Tachibana의 <生物始源 一名 種源論>으로 1896년이였다. 그 후 <種의 起源>은 1963년까지 11개 출판사에서 역시 번역본을 각각 출판하였다(Shimao 1981). 그러나 일본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수용되었으나 또 다른 진화론인 이마니시 긴지(今西錦司) 진화론(今西進化論: 棲息圈 分割論)의 강세(強勢)와 창조론의 2개 주장으로 인해 저항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은 완만해서 미국에서처럼 대립적 관계에서 격돌하고 정치화하는 일은 없었다(Setoguchi, 2004). 일본엔 자생적인 신도(神道)가 민족종교로 자리 잡은 전통이 있어 이마니시 진화론도 수그러들었고 기독교가 한국처럼 번성하지 못하고 매우 약세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엔 크리스마스가 없다.

한편 중국에선 사상가 엄복(嚴復 Yen Fu)이 토마스 헉슬리의 저서 <Evolution and Ethics> (Huxley 1893)를 번역하면서 다윈의 <Origin of Species> (Darwin 1859) 와 <The Descent of Man> (인간의 유래) (Darwin 1871)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 번역에 자기 소신과 비판을 버무려 <天演論>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 (嚴復 1898) 하였다. 당시 인구 약 5억인 대륙 중국에 다위니즘은 엄복의 이 책으로 단번에 도입된 셈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반대도 별로 없이 순탄하게 퍼져 나갔다.

조선엔 다위니즘이 언제 흘러 들었나?

이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1) 이광린(1979) <한국개화사상연구>

“원래 진화론은 서양에 있어서 창조설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간주되어 대단한 반론과 물의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神의 특별한 은총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던 인간을 다른 생물과 동열(同列)에 두는 소위 人獸同祖論으로 말미암아 반론과 물의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과는 다른 神觀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던 동양에서는 별반 반론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진화론이라 하면 生存競爭과 適者生存의 사상이 그 기본 원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쉽게 받아들여졌다. 결국 진화론은 부국강병을 정당화하고 민족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진화론의 슬로건인 <생존경쟁>과 <우승열패>라는 당시의 유행에 묻혀 오해와 혼동 속에서 퍼져 나갔다. 이광린은 다시 “1880년대에 있어서는 일본인들의 번역서 또는 저서로서 진화론을 받아들였으나, 90년대 이후, 특히 1900년대에 있어서는 중국인이 쓴 글을 통해 받아들여졌다” (이광린 1996).

그러나 천주교의 교황청의 클레멘스 11세가 1715년에 제사를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금지했으나 1939년 교황 바오 12세가 동아시아에서의 제사를 조건부로 허용하였다. 그사이 조선에서 크고 작은 천주교 박해는 11차례 있었고 그중 대규모로는 4차례가 유명하다. 특히 첫 번째로 대원군의 신해박해(1801)에선 수천 명이 희생되고 마지막으로 병인박해(1866 고종 3년)에선 9명의 프랑스 신부와 국내 천주교도 8000여 명이 처형되었다. 이런 박해는 병인양요를 불러왔다. 신유박해(1801)때

다산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유배되고 유배기간에 불세출의 학문적 업적을 낸 것은 유명하다(한국사 노트 2014).

이처럼 조선에선 기독교에 대해 혹독한 박해가 자행된 것은 다윈 진화론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2) 박상운(1982) <구한말에 있어서의 다윈주의 수용>

“우리나라에 다윈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1880년대에 일본인의 번역서 또는 저서를 통하여 받아들여졌지만, 1890-1900 사이에 중국인의 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엄복(1853-1921)이 허슬리(T. H. Huxley 1825-1895)의 ‘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 (진화와 윤리)을 중심으로 하고 스펜서의 학설을 섞어서 꾸몄으며 “腹案”이라고 하여 각 절 또는 2-3절마다 엄복 자신의 의견을 첨가한 번역서를 <天演論> (1898)이라 하여 펴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으로 시인 김낙택(1850-1972, 자는 于霖, 號는 滄江)은 嚴復이 <天演論>(進化論)의 번역을 마쳤을 때 그에게 詩三首를 보냈는데...”

3) 정순우(1992) <근대교육 도입기에 있어서의 교육정책>

전복희(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다윈의 이론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반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름대로 해석되는데 이와 함께 사회진화론은 한국에서 선풍적으로 선전되고 발전되어갔다”

4) 양일모(2007)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20세기 초 대한제국 시기에 알려진 다윈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였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인류를 포함한 세계가 경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서 진보 혹은 진화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면 조선엔 다윈니즘이 언제 처음으로 소개되었을까? 우선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1) 한성순보 1884년 3월 8일자 (사진 1) (김연희 2019)

여기에 <한성순보>의 사진과 그 밑에 관련 기사를 싣는다.

진화론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사는 <漢城旬報(1883. 10. 31 창간)>에 나타난다(사진 A). 한성순보 1884년 3월 8일자 「태서문학원류고(泰西文學源流考)」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다윈을 ‘달이문’으로 진화론을 ‘순화론’으로 표기하며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하고 있다. <한성순보>는 제국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약육강식이 팽배한 세계를 긍정하는 차원에서 그 책임을 피침략국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는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위의 <한성순보>의 다윈 소개는 내가 아는 한 이제껏 여러 연구에서 알려진 것(1906)보다 12년 앞선(1884년 3월) 조선 최초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 A. <漢城旬報> 매10日刊 표지

사회진화론이 소개된 이후 특히 1890년대의 한국사회는 대내적으로 동학농민전쟁, 갑오경장 등을 겪고, 대외적으로는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영토분할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사회를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으로 설명하는 사회진화론은 한국 지식인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사회진화론적 관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심하던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국제사회의 힘의 정치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의 침탈을 매우 잘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사회진화론의 흐름이 지배적이었지만, 생물학으로서의 진화론을 소개하는 흐름 역시 전개되고 있었다.

2) 한성주보

다윈의 생물 진화론에 관련된 언급은 한성주보 1887년 3월 7일자에서며 그 내용이 기사로 나와있다 (표지 및 기사; 사진 B, C). 續錄西學源流 (‘서양과학 연재’) (김연희 2019)

아래의 본문은 원서에서 모두 한자로 되어있으나 한글 번역도 나와 있어 여기에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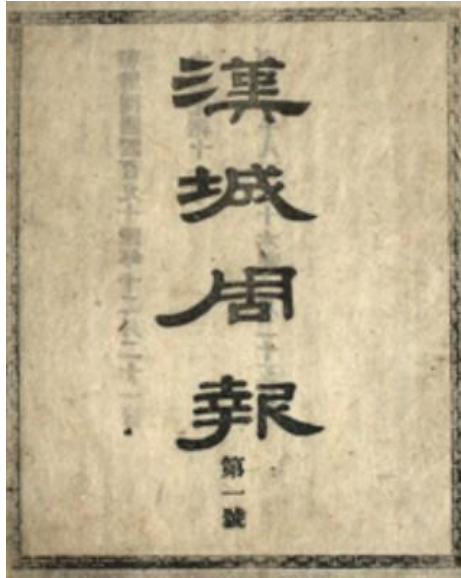


사진 B. <漢城週報> 週刊紙 표지

를 우러러 元祖라고 한다면 이런 이치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 說은 舊說이지만 新說에서 달리 점차 分派가 생겨 사람이나 생물을 막론하고 모두 함께 동시에 생겨거나 혹은 오랜 세월을 두고 차례로 생겨났는데 모두 창조주의 명에 의해 생겨났다고 하는것보다 뜻은 실로 크고도 훌륭하다. 40년 전에 英國의 醫師 達爾溫(다윈 Darwin)이란 사람이 西海를 두루 다니면서 각 지방의 동식물을 조사하여 라마르크의 說을 거듭 뒷받침하였다. 그는 각 생물이 변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地勢가 그렇게 만든 것으로 北方의 것은 기온이 추워 생물에 털이 많이 나 있으며, 남쪽 지방은 기후가 따뜻하여 같은 종류의 생물일 지라도 털이 없다 하였다. 또 땅 속 각 층에 묻혀 있는 骨跡을 채취해 증명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太古적에는 地面에 물이 많아 그 生物은 水産에 모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후에 수륙이 나누어지면서 禽獸가 비로소 생겼다 하였고 사람의 경우는 가장 새로 형성된 地層에 骨跡이 있어 가장 나중에 생겨난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하나는 각 생물이 형태의 變異를 보아서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을 配合하는 방법이다. 海鳥는 처음에는 날지 못했으나 암컷 수컷이 교미할 때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져서 날게 된 것이다. 하나는 弱肉強食에 의해 생존하고 멸망한 예이다. 기후의 寒冷과 地勢이 高下에 따라 점차 변형되었는데, 그 형태가 적합한 것은 강해서 생존하게 된 것이다. 咸豐 9년(1859)에 다윈이 이런 이치를 밝혀 책을 저술해 냈는데, 이름을 「物類推原(種의 起源: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이라 하였는데 의미가 깊고 문장이 좋아 각국에서 다투어 번역해 널리 전해지고 있다. 지금의 많은 學者들이 그의 說을 따르고 있는데, 그 說의 要旨은 天象을 살펴서 元氣를 미루어 알고, 地學을 연구해 지난 자취를 연구하며, 동물·식물 등 만물로 말미암아 人類의 처음을 소급해 올라간다. 이 모두가 造化의 자취를 자세히 관찰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天地의 생물은 모두 차례로 經營되어 열매가 맺어진다. 오직 聰明한 지혜를 가진자만이 만물을 主宰한다.

사진 C. 한성주보 1887. 3. 7.진화 관련 기사

위 원 기사를 요약하여 쓰면: 점진론 인정, 라마르크의 상향 진화, 영국의 다윈이 40년전에 낸 ‘종의 기원’에서의 자연도태와 적응 사례를 들었다. 또한 환경에 적응하여 변이를 통해 신종 출현, 약육강식에 의해 멸종, 지층이 깊으면 옛 생물, 높을수록 최근 생물. ‘의미가 깊고 문장이 좋아 각국에서 번역’, ‘천지의 생물은 모두 차례로 경영되어 열매가 맺어진다. 오직 총명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만물을 주재한다’. 등이 써 있다.

조선의 경우 비록 저술이 아닌, 간단한 소개였으나 일본에는 4년 뒤였으나 중국에 Yen Fu (嚴復)의 <天演論> (1898)을 진화론 중국 도입으로 친다면 11년 앞선 셈이다. 그러나 저술로 치면 <종의 기원> 이 일본에선 1896년에 그리고 중국에 <天演論> (1898)을 <종의 기원>의 번역본으로 친다면 1898년에 출판된 것으로 각각 한국에선 김호직의 <종의 기원>(1958)이 최초 번역으로 알려져

있어 이 두 나라 모두에 약 60년 뒤져 있다. 그러나 최초의 한글판은 원작의 출간 (Darwin 1859) 이후로 치면 100년만에 나온 셈이다.

다음은 1909년에 저술된 이상용의 <진화집설(進化輯說)>에 나타나 있다. 이상용은 다윈의 種原論을 설명하며 “생물 변천의 원인은 모두 자유경쟁 우생열패”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다윈의 종의 기원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1907년 박유병의 <진화론(進化論)>이라는 글에서는 유전의 중요성과 진화, 즉 적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후천형질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이를 종의 분화, 신종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유길준은 미국 유학 시 다윈니즘을 일본에서 처음 강의한 모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그로부터 서구 문물과 신사조들을 접하면서 사회진화론은 물론 다윈의 진화론도 들었음직하다. 그러나 이를 단정할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유길준이 귀국 후 쓴 ‘競爭論’이라는 글에서 ‘大凡 人生의 萬事가 競爭을 依持하지 아니한 者가 업스니... ‘경쟁을 하지 않고선...’. 일본의 <動物進化論> (石川 1883) 에는 1년 늦었다. 그러나 일본에선 일본어판 <종의 기원> 이전에 다윈의 <인간의 유래>등의 일어판이 나와 있어 일본에 다윈니즘은 훨씬 그 이전에 도입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짤막한 언급과 저서를 들어 진화론 도입의 근거자료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앞에 이미 말한 것처럼 조선의 진화론 소개는 일, 중에 비해 거의 60여년이 늦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역사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예를 든다면 “1890년대에 이르러 차츰 일반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이에 대한 학계나 일반의 반응은 거의 없다시피 지나갔고 다윈의 <종의 기원>은 기독교 사상과 배치되나 역시 당시엔 기독교로부터도 무반응이었다. 아마도 다윈의 책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분류학, 지질학, 고생물학, 발생학 등 자연과학의 학문 들이 조선에선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책 내용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전복희 1996). 앞의 이런 사정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 다윈의 진화론 관련 기록은 다음 장웅진의 글에서 처음 볼 수 있다. 그 후 뜬문뜨문 나타나는 것들 도합 12편(앞의 첫 것 포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장웅진(張膺震 1906). 진화학상 생존경쟁의 법칙. <태극학보> 4호 7쪽: 원문은 한자가 많아 한글풀이를 소개한다. 장웅진은 <진화학상 생존경쟁의 법칙>이라는 글에서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생존경쟁은 자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은 생물은 무제한하게 증대되는데 반하여 식물은 제한적으로 증식되어 생물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 식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4) 박유병(朴有秉)이 공수학보(共修學報) 제2호(光武11년) (고종11년 1907)에 ‘進化論’을 제목으로 쓴 글에 ‘形質變異’ ‘形質이 漸進漸化’, ‘自然淘汰’ 등이 나오고 낙타가 사막 모래 색깔에 적응하는 등을 쓴 것으로 보아 다윈의 진화론이 비취지고 있다. 이 글을 게재한 ‘共修學報’는 在日本 東京 大韓共修會에서 발행하는 잡지다.

5) 강병옥(康秉鈺)은 앞의 잡지 같은 호(1907)에 ‘動物種族發生의 學說’을 주제로 쓴 글 속에 ‘地球 變遷時代에 地質學의地層의 順序를 從하야 下等生物遺跡이 高等生物遺跡보담 下層에 在하디하니...’ 이 역시 다윈의 진화론을 따른 말이다.

6) **윤태영**(尹泰榮)이 ‘進化論大意’를 제목으로 위와 같은 해(1907)에 쓴 글[<夜雷> 1권5호(1907.6.)에서 일부 발췌하여 현대 문체로 옮겨 쓰면 다음과 같다. ‘진화론은 지구상 생활하는 동·식물이 모두 최초부터 현재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점점 진화하여 오늘과 같이 이뤄짐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이들 무수한 동·식물은 각각 선조가 있어 그 선조에서 차츰 발생하였으니 그 선조의 시작점에선 간단한 형질을 갖췄으나 점점 변화하여 복잡해 된 것... ‘유럽에서 18세기까지 성행하던 耶蘇敎(예수교의 중국식 표현. 필자 註)에 의하면 오늘날의 동·식물은 天帝(종교마다의 절대자 즉 神:필자 註)가 창조한 것이라 만고에 불변할 것이라 말하더니 그 후에 영국, 독일 프랑스로부터 세 학자가 나와 이러한 미신을 깨뜨렸으니 이 세 사람은 다윈, 그테(그테: 독일현지발음 =퀘테:한국식 발음:필자 註)와 라 마르크이다. 여기에 각종 적응과 용불용설 그리고 획득형질의 유전설이 설명된다’.

위에서 ‘무수한 동·식물은 각각 선조가 있어’는 다윈의 생각과는 판판이다, 그러나 비록 다윈니즘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다윈니즘이 종래의 믿음을 깨뜨렸음을 말하고 있다.

7) 그 7년 후 新文館 編 1914. ‘進化論’은 앞서 **윤태영**이 ‘進化論大意’에서 3쪽에 걸쳐 쓴 것과 내용이 비슷하나 저자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헤켈의 반복설이 소개된다. 끝에 이르러선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들면서도 진화현상도 무기물계의 현상과 유사하다는 언급도 나온다. 윤태영의 글이 3쪽인데 반해 이 글은 12쪽이니 장편인 셈이다. 그러나 ‘편집’으로 되어 있을 뿐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8) **서춘**(徐椿)의 1918년 글 ‘近來의 生物學’이 <青春> 제12호(1918.3.) (pp,43-53)에 실려 서두에 18세기 린네를 소개함이 없이 ‘現代生物學의 一分科인 分類學(Taxonomy)’의 출현으로 점점 늘어가는 다수의 생물을 분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류에는 생물의 외부와 기관들의 외형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됨으로 形態學(morphology)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당대에는 분류학과 형태학이 발달하였으며 형태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물의 분류가 점차로 완전히 가깝게 되었다 ‘고 말한다. 이어 생리학, 발생학, 해부학, 세균학, 생태학, 유전학 등이 간략히 소개되었다.

9) 이어 ‘進化에 關하여’ (앞의 호 46쪽 1918)에는 “가축의 경우 ‘變化性’은 교잡을 통해 생기고 優勝劣敗의 원리에 따라 人爲淘汰가 일어난다. 그러면 자연에 서식하는 생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윈은 연구를 계속한 결과로 말사쓰의 人口原論이 동기가 되어 야생동물이 변화하는 원인을 각오하니 즉 동식물의 그 종류가 다수하고 또 계속하여 형형색색으로 변화하는 원인은 당시 종교가의 信하는바와 가티 하나님의 秘密한 작용이 아니오 일종 자연법에 의하는 者라 가정하고 차 가정에 基하야 넓히 생물계를 관찰하니 과연 천연작용은 스스로 동식물을 선택하여 時와 處所에 適한 자는 생존하고 時와 處所에 부적한 자는 소멸함을 발견하니라 즉 각생물은 시절과 外界에 적합하기 위하여 시시각각 유의식적 或 무의식적으로 분투노력하나니 此卽 생존경쟁이라’ . 다시 말해 가축은 유전, 변화, 선택 三條件에 기인하여 예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화하니 소위 人爲淘汰요 가축이외의 일반생물은 유전, 변화, 생존경쟁을 통해 변화하니 이것은 곧 자연도태이다” .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각 생물은 시절과 외계에 적합하기 위하여 시시각각 유의식적 或 무의식적으로 분투노력하나니 此卽 生存競爭이라’ 로 야생의 생물이 자연선택되기 위해 ‘분투노력’ 한다고 보는 의인적(擬人的) 시각이다. 그러나 또한 적응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의를 끄는 바는 방금 말한 ‘奮鬪努力’ 한다는 擬人的 표현 이외에 생물이 나타내는 변이(variation)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빅토리아 당시의 완강한 사회적 인습을 부정하는 대담성을 보이는 점이다.

10) 앞의 글이 나온 지 7년 후 강용(姜鎔)은 ‘生物進化論’을 9쪽에 걸쳐 썼다(<新知識> (1號 1925.1. pp.50-58).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인류가 처음에 지구에 와서 자연계에 었드한 위치를 점령해야 온 것을 먼저 말하고저한다’이다. 인류가 외계에서 왔음을 암시하는지 확실치 않다. ‘생물은 진화하여 공동한 祖先으로부터 각 형체 및 조직이 相似한 祖先의 후예로부터 분과된 것을 了解한다’는 ‘공통조상’ 개념을 말하는 것 같으나 ‘형체 및 조직이...’가 이어져 문장 전체를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 사람이 무엇이냐 ‘에 대한 답으로 “인간은 결단코 다른 생물보다 특수한 생물이 아니라 獸와 동일한 포유류에 속하여 이것 등과 동일한 祖先으로부터 되었다’는 인간이 신의 창조물이 아님을 말함으로서 당시로선 파격적인 발언이다. 그 다음엔 라마르크의 <動物哲學>을 들며 획득형질의 유전설과 용불용설을 소개한다. 그러나 ” 생물진화는 용부용설노써 완전한 설명을 었지못한다고 한다 “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어 一種으로 다수의 품종을 만드는 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第一 양친으로부터 産하는 子의 수가 多할 시. 第二. 變異性이 잇서 동일한 양친으로부터 生한 자손이라고 하지마는 결단코 동일치 안는 것. 第三. 親에 낳타내는 形質은 子에게 遺傳하는 것이다” 염색체 재조합이나 돌연변이가 발견되기 전으로선 매우 그림직한 설명이다.

이어 ‘外界直接作用說에 의하면 外界影響으로부터 생물은 그 情況에 응하는 變化를 生하고 그 變化된 現實은 이것을 子孫에 遺傳하여 항상 一定의 방향에 잇서 변화로부터 신형질을 生하고 신종을 형성하고도 器官의 用不用의 관례로부터서 진화를 起한다고 하는 설도 잇다’가 나온다.

이 대목은 바로 네오-라마르크리즘을 말하는 듯하며 20세기 이후 특히 후성유전(epigenetic inheritance)과 진화발생학(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 그리고 표현형 가소성(表現型可塑性 phenotypic plasticity)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힘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리고 책(Gissis and Jablonka 2011)도 나왔다.

11) 앞의 글이 나온 이듬해 1926년에 <우라키> 제2호에 조희염(曹喜炎)이 쓴 ‘進化論을 是認하여야 할가’의 소제목으로 一 진화론의 정의, 二 진화론의 간접기원. 三. 우주진화, 四 지구와 생명조직의 진화를 설명하는 학설, 五 우주 진화의 목적, 六. 결론이 나온다.

글 끝의 결론에서 필자 曹喜炎은 Dr. Bateson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吾人の 진화론에 대한 신념은 전혀 不動搖할 것이라는 것을 명료하고 오해가 업슬 言辭로 선포하자. 모든 유용한 論辯의 進路는 此不可避의 결론으로 輻合(convergence)케 된다”.

위의 Dr. Bateson은 William Bateson (1861-1926)을 말하며 영국의 유전학자로서 ‘genetics’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1900)한 세 사람 중 한사람이다.

이 글은 진화의 개념을 우주론으로 확대한 논설이라 할 수 있다.

12)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자 “進化學說의 論據

(一) 다윈의 名著 『種의 起原』의 總括 及 結論의 一章抄譯. 1926년 4월 22일, ‘제목 위와 같음’

(二) 1926년 4월 22일, ‘제목 위와 같음’

(三) 1926년 4월 23일, ‘제목 위와 같음’

우선 다윈은 L變化와 L自然淘汰에 의한 改變에 의하여 種族이 分岐된다는 學說에 對하여 여러 가지 重大한 反對說이 잇을 것을. 나는 그런 反對說을 充分히 考慮하였다. (이하 인쇄불량으로 해독 불가)./ 進化學說의 反證가운데 異種生物을 混交할때에 生殖能力이 減退되는것을 들수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그 異種動物의 生殖器의 差異에서 나온 것이다. 그 反對로 同種中の 變種은 混交할時에는 生殖力이 增加한다.... 다음에 地理的分布를 考査하면 進化學說에 對한 難關 亦 만이있다... 그러나 記憶할 것은 動物은 年으로는 數치못할 長久한 歲月동안에 比較的同一인 形貌를 保守한다는 事實이다. 그러면 그런 長久한 時間에는 아모리 無人絶島까지라도 分布될 機會가만히잇섯을 것이다. 혹은 相違한 地方에 同種動物이남어잇고 그中間地域에 잇던中間動物은 絶滅되었을수도잇고 또 地質學的 變化가 地球表面에 生길때만에 移住할수도잇는 것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移住方式에 對하여아직우리는 모르는 것이 만타./...사람이 自手로 變種을 만들수는업다 그러나 사람은 天然의 變種을 選擇할수는 잇다.... 그결과가오늘보는 가장 有用한 家畜들이다. 家畜動物에서이가지 實現되는 選擇의 原則이 自然界에서 아니될 理가업다.

이 글은 제목에서 <다윈의名著 『種의 起原』의 總括及 結論의 一章抄譯>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종의 기원>의 마지막 14장 ‘Recapitulation and Conclusion’을 발췌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 20세기 전후, 다윈의 진화론 관련 12편의 글들에서 특이 사항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박유병은 형질 변이의 발생을 그리고 진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진론을 말했다. 이어 강병옥은 하등동물 유적은 보다 깊은 지층에 그리고 고등동물유적은 보다 상위 지층에서 발견된다는 층서학적 소견을 피력했다. 다음 윤태영은 ‘이들 무수한 동식물은 각각 선조가 있어’라는 말로 오늘날의 소견과 반대되는 개념을 보였다. 한편 서춘은 형태학의 출현과 발전 덕분에 분류학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강용은 다윈의 진화론이 실은 윌리스토 다윈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 런던의 린네학회에서 두 사람의 공동발표로 세상에 알려졌음을 밝히고, 인위도태, 자연도태, 자용도태를, 그리고 환경의 영향이 적응으로 이어져 다음 대로 유전된다는, 그래서 사실상 네오-라마르키즘을 시사하는 대목을 보인다. 이어 조희염은 우주적 진화론을 펴 우주와 지구상 모든 분야와 현상에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며 신의 창조론을 부정하며 人獸共通祖上論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1884년에서 1926년에 걸친 글들은 발표연도 진행에 따라 다윈 진화론의 핵심개념들이 차츰 들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계의 반응 몇 편 발견되어 아래에 소개하나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엠노스티 著, 韓山 譯 1923. ‘進化論의 鼻祖 다-윈과 宗教界의 巨頭 칼빈’ <青年>. 第3卷 第8號 通卷99號 (1923.9. pp. 12-16)

金英豪 1926. ‘實際主義의 立脚地에서 創造의 進化를 論하노라’ <延禧> 第6號 (1926.5. pp.9-16).

咸日頓 1929. ‘基督教와 科學. 有機的進化論 (十一)’ <眞生> 第5卷 第9號 (1929.11. pp.63-65)

洪以燮 1940. ‘神의 進化論의 研究에 關한 小論’ <青年> 第21號 (1940.3. pp.12-13)

이상에서 한국에는 영국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지(1859) 거의 4반세기 만에(1887)

기록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추가 발굴에 따라 더 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글로부터 10년 후인 1935년 金秉河가 잡지 <科學朝鮮> 三月號 (제3권 제2호 1935. 3. pp.17-19.)에 ‘適者生存과 動物界’ 가 눈을 끌어 잠시 읽어보았으나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기때문에 ‘優’ 라든가 ‘劣’ 은 自然淘汰에잇서서의 適不適을 意”. 당시 의사전달이나 용어 정의가 오늘의 그것과 달라선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이 나온다.

지금까지 1887년부터 1926년까지 다위니즘이 어떻게 수용되어가고 있는지 훑어보았다. 그 이후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에 들어가면 비교적 많은 언론발표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에 대한 글이 많고 다위니즘에 대한 것은 소수다.

<조선박물학회지>에 나타난 조복성과 석주명의 열정

나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1924년에 朝鮮博物學會誌가 창간된 이후 1944년에 종간되기까지 1~40호에 실린 논문들을 살펴본 적이 있다(이병훈과 김진태 1994). 여기에는 91명의 저자가 쓴 318편의 논문이 수록되고 이중에 동물분류학 논문이 224편(70.4%)으로 가장 많고 224편 중에서 중 기재, 종 목록, 동물상에 관한 것이 201편이다. 전체 224편 중에 진화관련 논문은 단지 4편뿐이다. 그야말로 자연학(natural history) 전성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 저자가 8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인은 조복성, 석주명 등 7명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논문 수는 전체에서 많기로 22편을 보고한 조복성이 3위 그리고 17편을 발표한 석주명이 5위를 차지한다. 이 두 분의 열성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간다. 여기에는 아마도 사회진화론이 강조하는 <優勝劣敗>의 슬로건이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인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독립회복 갈망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복성과 석주명은 나비류의 변이성 연구를 했는데 특히 석주명은 매우 많은 수의 개체를 관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은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변이가 진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아울러 종은 어느 한 개체나 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존재함이 밝혀져 그 집단이 어떠한 유형의 변이를 나타내느냐가 종을 규정하고 진화를 구명하는데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집단의 특정 형질에 대한 변이 연구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종의 개체군 개념과 생식적 격리 시스템을 선구적으로 개척하고 끌고 나간 사람은 미국의 계통분류학자인 에른스트 마이어(E. Mayr 1904-2005)로서 그는 유전학자 도브잔스키(T. Dobzhansky 1900-1975)와 고생물학자 심슨(G. G. Simpson 1902-1984)과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 <진화의 현대적 종합>을 이룬 시기였다. 석주명도 당시의 최신 개념에 따라 변이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1950년 전으로 눈에 띄는 기사는 과학지식보급회 지방위원 金熺明이 “파윈과 生物進化學”을 제목으로 <科學朝鮮> (1929. 3. 京城科學智識普及會 發行)에 ‘신다윈설’ (Neo-Darwinism)을 소개하고 있다. 변이의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유전성 변이만이 신종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바이스만이 용부용설을 부인하고 ‘Determinate’ (determinant의 오류, 결정소, 후에 ‘유전자’ 필자 註)를 소개하고 있다, 바이스만의 생식질과 체질의 구별 개념을 소개하는 한편 용부용설 否認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의 신다윈설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장래 유전자’를 밝혀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혁슬리를 ‘학쿠스레이’, 윌리스를 ‘우오레스’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일본책을 읽고 옮긴 것으로 보이며 당시까지 다위니즘 관련 논설뿐 아니라 과학계 전반의 기사 대부분이 역시

일본책으로 공부해서 썼다고 생각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다윈니즘 관련 가장 두드러진 일은 다윈-월리스 진화론 백주년 기념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이었다.

<Darwin-Wallace 進化論 百年紀念 現代科學 심포지엄>

이 행사가 1958년 7월 1일부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대강당에서 3일간 개최된 것이다. 이 행사의 취지로 말하면: 「...그의 진화론이 현재까지 발전하여 온 발자취와 인류문화향상에 기여한 그 공적을 더듬어 보며, 아울러 생명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현대생물과학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를 통일된 하나의 「場」으로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의 생물학이 걸어 나갈 방향을 모색하려는 뜻에서 강연회 및 「심포지엄」을 베풀어서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심포지엄 개요를 추려서 실고자 하는 바 많은 질의응답이 있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건만 지면관계로 실지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주최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생물학연구회이고 발표내용 요약이 이 연구회가 발행하는 <生物學研究>에 특집(生物學研究 제3권 제1호)으로 수록되어 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대강당이었고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일보사, 및 대학신문사의 후원 아래 개최되었다.

당시 연사와 제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강 연

<Julian Huxley의 진화론적 「휴머니즘」> 崔載喜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진화론이 자연과학에 미친 영향> 金浩植 (서울대 농대)

제1부 생명의 기원 <단백질의 구조> - 李鐘珍(서울대 문리대 화학과),

<Virus의 본질> - 李揆明(서강대 생물학과),

<핵산> 李基寧 서울대 의대), <유전인자와 효소> 盧俊熙-(성균관대 생물학과),

제2부 종의 문제. <종의 개념>-鄭英昊(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

<생태형>-金遵敏(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

<고생물학적인 면에서> - 鄭昌熙(서울대 문리대 지질학과)

당시 나는 주최 과의 4학년생이어서 미리 잘 알고 참석할 수 있었다. 김훈수 교수님이 심포지엄 준비에 동분서주하셨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강연과 심포지엄의 주제 선택과 연사 초빙에 있었다. 인적 풀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는 진화생물학의 중요 이슈를 거의 담아내지 않았나 생각되며 연사를 다양한 대학에서 초빙해 왔다. 위의 발표자에 괄호 내 소속을 밝힌 것은 내가 부처본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가 한국전쟁 휴전 2년 후라 전쟁의 먼지도 채 가라앉기 전인데 ‘다윈-월리스 기념 100주년’ 기념행사를 벌인 것은 한국으로선 진화생물학의 잠재력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조선에서 1884년에 다윈의 진화론 소개가 <한성순보>에 얼핏 나온 후 환갑을 치른 시점의 결산인 듯하다. 더구나 DNA 구조가 발견되어 발표된 1953년 이후 불과 5년 후여서 이기녕 교수의 발표 ‘核酸’이 유달리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 인하대학교 양서영 교수는: <다윈 100주기 기념 진화론 심포지엄-오늘의 진화론>을 제목으로 ‘과학과 기술’ (15권 4호 pp.35-36 1982)에 진화생물학자로서 현재 살아있는 최신의 진화론을 소개하였다.

다윈의 3대걸작의 한국어 번역은 어떻게 이뤄져 왔나?

문화 이동의 역사적 징표를 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록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1958년 1월에 김호직(金浩植)이 다윈의 <The Origin of Species>을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다윈의 작품 한국어판 출간의 효시인 동시에 <Origin of Species> (Darwin 1859) 출간 100주년작인 셈이다. 이분은 동경제국대학 출신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그가 일본어에 능통해 일어판을 번역원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음에 나올 북해도제국대학 출신의 이민재의 번역 역시 마찬가지다. 당분간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었다고 보인다. 어쨌든 그 후 다윈의 저서 세가지가 번역판으로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그러나 아동용이나 기타 특수유형들이 있어 이외에 더 많은 게 사실이다.

1)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by Charles Darwin 1859. Murray.

<種의 起源> 김호직 역 1958. 1.1. 문교부

<種의 起源> 강태정 역. 1994.4. 일신서적출판사

<종의 기원> 이민재 옮김. 1995.10. 을유문화사

<종의 기원> 윤소영 풀어쓰. 사계절출판사 2004.03,

<종의 기원> 홍성표 역 2007.05.30. 홍신문화사

<다윈 종의 기원> 송철용 옮김 2009.2. 동서문화사.

<종의 기원> 모든 생명의 자유를 선언하다 찰스 로버트 다윈. 박성관 역, 강전희 그림 2012.08.20. 너머학교

<종의 기원> (한길그레이트북스 133) 찰스 로버트 다윈(생물학자) 저, 김관선 역 2014.12.22. 한길사

<종의 기원> 찰스 로버트 다윈(생물학자) 저 송철용 역 2016.09.09. 동서문화사

<종의 기원> 정유정(소설가) 저 위즈덤하우스 2018.05.30.

<종의 기원> 찰스 로버트 다윈(생물학자) 저 이종호 역 2018.12.25. 지식을만드는지식

<종의 기원> (툭아보기) 찰스 다윈 저 신현철 역 2019.08.30 소명출판

<종의 기원> 장대익 역 2019.7. 사이언스북스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다윈 지음, 김창한 역 2020.05.15. 집문당

<종의 기원> 이서영 저 2021.02.01. 아작

2) Descent of Man and Sexual Selection 1871. Murray.

<인간의 유래 1> 김관선 옮김 2006. 2. 한길사

<인간의 유래 2> 김관선 옮김 2006. 2. 한길사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이종호 옮김 2012. 2. 지식을만드는지식

3) The Emotion and Expression of Man 1872. Murray.

<인간과 사람의 감정표현> 최원재 역 1999.11. 서해문집

<인간과 사람의 감정표현> 김성한 옮김 최재천 감수 2020. 11. 사이언스북스

<인간과 사람의 감정표현 눈물의 이유는 같다> 2014.5. 김홍표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극동 3국의 진화론 도입을 서양과학 수용에 비춰 봄

과학사가 朴星來는 오래전에 <한·중·일의 서양과학수용 비교-1800년 이전의 근대과학 잠재력 비교> 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냈었다(박성래 1981). 내가 앞에 다룬 진화론 수용에 관련해서 그 이전 시대의 서양과학은 어떻게 이 3국에 접근해 왔다가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박성래는 중국에 관련해 기술하는데 쓴 제목을 ‘中國의 宣教師 科學’ 으로 표현해 그 특징을 한마디로 집약했다.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이 천문학에 흥미를 느낀다는데 착안, 그들 자신이 과학자가 되었다. 이태리 예수회 출신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馬)가 일찍이 16세기에 마카오에 도착(1582)하면서 다시 북쪽 북경에 와(1601) 우선 士大夫층에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중국 고위층에 있는 徐光 啓(1562-1633)의 지원으로 교리서 <天主實義> 외에 과학서인 유클리드 기하학 <幾何原本>과 천문학, 지리학, 기타 기술서적 등을 쓰거나 번역하였다. 말하자면 서양과학 입수 초기엔 수용이 순조로웠다. 비록 선교사와 중국본토인 사이는 同床異夢적인 관계였으나 중국인에게는 과학을 배우다 물드는 종교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다가 서양과학이 전통과학보다 일식예보 상으로 더 정확함이 들어남에 따라 西教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마침내 천주교 박해사건(南京教案)이 일어났다. 중국의 전통혼란, 제사 혼란, 요순 이래의 역법과 가치관 문란 등이 이유였다. 그 후 欽天監의 관찰이 서양과학의 우월함을 계속 들어내자 제한된 범위의 포교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元元(1764-1849)은 지구설이나 지동설 모두 사실은 중국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근대의 중화중심사상은 그 훨씬 전의 서양과학도입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럼 일본의 과학 수용은 어떠했나? <日本の 蘭學의 科學>은 박성래가 일본에 대해 부친 두 번째 제목이다. 그러나 일본에 첫 번째로 들어온 서양의 ‘文物’은 중국의 경우보다 70여년이나 이른 1543년에 일본 규슈 남쪽바다에 표류해 들어온 鐵砲였다. 일본에 중앙집권제가 이뤄지기 전인 시기에 지방 영주들은 이때 얻은 철포를 앞다투어 개발했으며 그 일종인 鳥銃이 豊臣秀吉의 조선침략(壬辰倭亂)때 썼던 鳥銃이다. 그러나 과학이 중국의 처음 기술 도입 때의 비중으로 과학이 일본에 도입되기는 중국보다 앞선 16세기 중반에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코 하이에르(Francisco Xavier 1506-1552)일행이 일본의 서남쪽 가고시마(鹿兒島) 해변에 상륙한 때의 일이다. 그들은 自鳴鐘, 거울, 포도주 등을 지방 영주에게 진상하고 포교 허락을 받았다. 그밖에 여러 영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진상품 대신 포교를 허락받았다. 선교사가 이렇게 여러 영주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고 무기 경쟁과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우에는 천문역산 등 학술적 이익 때문이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는 무역을 벌여 벌어드리는 돈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서양과학의 전파는 선교사의 도착 즉시 교리 전파에 몰두하지 못한 중국과 달리 일본에선 장사에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선교사들은 교리학교 짓는데 열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짓기가 대학수준에 이르자 지식층에는 서양의 우주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 당시의 해안의 밀물 썰물, 流星, 지진, 기상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워 나갔지만 서민층은 나름대로 의술에 주목하고 이용하였다. 그러나 豊臣秀吉을 물리치고 집권한 德天幕府는 경도(Kyoto)의 천주교당을 파괴하고(1612) 포교를 금지하고 이태 후에는 쇄국령을 내려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長崎(Nagasaki)에서만 대외교역을 허락하여 화란인과 중국인의 왕래를 허락하였다. 당시를 대표하는 과학자는 실은 화란인 澤野忠庵(1580-1650, 본명 Cristorão Ferreira)로 천문학책을 쓰고

의학서도 쓰는 등 서양의학의 대략을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하였다.

鎖國下에 부진하던 서양과학은 18세기 초에 들어와 활기를 띠어 德川吉宗은 天文, 曆學 등에 흥미를 느낀 터에 그 수용은 매우 활발해졌다. 이어서 이른바 蘭學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온도계의 이치, 전기현상 이해, 뉴턴力學, 重力과 慣性, 地動說의 이해 등 서양과학 수용은 날로 빨라져 蘭學의 위치는 날로 올라가고 자리잡았다. 이로써 일본의 과학은 극동 3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蜃氣樓를 피워내며 발전하였다.

그러면 조선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중국과 일본이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과학이 들어오는 행운을 누리는데 반해 조선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하멜 등이 표류해 들어왔으나 서양과학 전파에는 기여한 바 없었다. 오히려 17세기 초 정두원이나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귀국 등으로 서양문물이 약간 들어온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결국 서양과학을 배우려고 애쓴 사람으로 이익(李瀾, 1682~1764)과 홍대용(洪大容, 1731~1783)등 實學思想家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람 모두 서양과학의 우수성과 정확성을 인정하였다. 홍대용은 渾天儀, 候鐘과 그 밖의 몇 가지 천문의기를 만들어 집안의 籠水圈에 보관하기도 하여 이익(李瀾)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조·중·일의 서양과학 도입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조선이 가장 뒤떨어졌다.

일본과 중국에 들어온 서양과학은 그 일부가 최한기(崔漢綺, 1803~1879)에 이르러서야 겨우 조선에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본은 개국 이전에 이미 뛰어난 과학기술 수용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에 먼저 성공할 수 있었으나 중국이나 조선은 그렇지 못하여 굴욕적인 최근세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1800년에는 19세기 시작점에서 보면 서양과학 수용의 잠재력은 일본이 제일 앞섰고 뒤처진 중국과 조선은 그 후의 쓰라린 역사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근대과학 수용은 이글 <조선의 진화론 유입>에서 극동 3국중 가장 느렸듯이 중국과 일본을 통한 간접적 도입의 숙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이 이룬 70여 년간의 발전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중국과 일본을 마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능가하고 있어 오늘의 한국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극동의 ‘셋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쓰기를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인물 몇을 들라면 유길준, 유경석, 서재필, 윤치호, 그리고 김옥균 등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나라의 독립과 문화강국을 위해 붓에 온몸을 실어 끝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많은 애국지사들 중 몇 사람이라 생각된다.

주어진 제목 ‘진화론 한국 도입’에 대해서는 대략 이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결론

조선이 과학기술 도입에서는 물론 진화론 도입에도 극동 3국(한, 중, 일)중 가장 뒤처졌으나 여기에는 양 옆에 조선보다 큰 나라들을 놓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숙명적으로 간접도입을 ‘유도’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초기 선교활동 수단으로 서양과학 서적 입수에 열성이었던 선교사들에게 조선은 극동 3국 중 대륙에 붙어있는 작은 ‘땅조각’ 썸으로 여겨져 관심을 둘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장애’가 사라진 마당에 디지털 문명은 한, 중, 일을 거의 평준화하는데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발생학자 金昌煥(고려대)은 한국에서의 생물학사를 4個期로 나누고 마지막 4期の 起點을 1945년 광복의 해로 잡았는데 그 표제를 <韓國人 生物學者들의 活動期인 第四紀(1945-

현재)>로 잡았다(김창환 1977). 이번 1958년의 다윈 기념 행사가 바로 그 ‘자주적 진화연구’ 새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진화생물학은 그 후에도 일부 생물학자들의 열성으로 연구되고 종분화, 계통진화, 분지계통학 등으로, 그리고 분류학회, 생태학회, 유전학회에 몸담아 맥락을 이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고 백용균, 고 이택준, 고 양서영, 이상태는 한국 현지에서 또는 미국에서 진화생물학 또는 계통진화학을 연구하여 ‘Evolution’ 이나 ‘American Journal of Botany’ 등에 개재한 큰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 특히 양서영과 이상태는 이 분야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진화생물학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함으로써 진화생물학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증명하였다. 이 두 분은 국제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눈부신 업적을 쌓은 정통 진화생물학자로 생각된다. 위 네 분 중 두 분이 모두 근년에 작고하여 그분들의 체취를 아직도 느끼고 있다. 후학들은 마땅히 이분들을 본받아 한국의 진화생물학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분발을 도모하여 한국이 진화생물학으로 모든 생물과학 분과들이 수렴하고 조명되는 생명과학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주제 ‘진화론 한국 도입’은 진화생물학이 아니고 과학사에 드는 주제로 인문학 분야다. 그래선지 처음엔 19세기로 올라가자니 앞이 캄캄하였다. 다행히 바로 옆에서 길을 발견하였다. 전북대학교 부설 한국과학문명연구소의 문만용 교수의 조언이 도움이 된 것은 물론 김연희 연구교수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안내해주어 20세기 초의 진화관련 문헌을 찾을 수 있었고 더욱이 1884년 <한성순보>와 1887년 <한성주보>에 다윈이 나옴을 지적해주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신미영 연구교수도 시종일관 나의 여러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었다. 이 세 분의 도움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고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에 아울러 바쁜 시간에도 나의 마지막 원고를 읽어준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의 안기정 교수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한다.

더욱이 편집위원장 김유섭 교수는 고령인 나를 도와 설문을 배포하고 회신을 접수하는 일을 도맡아주었다. 김유섭 교수의 노고와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

참고문헌

- 姜 鎔 1925. 生物進化論. 新知識 1號 pp.50-58.
- 金秉河 1935. 科學朝鮮 三月號 제3권 제2호 pp.17-19.
- 김연희 2019 <한역 근대과학기술서와 대한제국의 과학> 혜안
- 金昌煥 1977. <韓國生物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現代文化史大系. 4: 145-182.
- 金燾明 1929. 따-원과 生物進化學. 科學朝鮮. 京城科學智識普及會 發行.
- 박노자 2004. 1900년대 조선, 양계초에 반하다. 박노자의 세계와 한국. 제494호
- 朴相允 1982. 구한말에 있어서의 다윈주의 수용.
- 朴星來 1981. 韓·中·日의 西洋科學受容: 1800년 이전의 近代科學 潛在力 비교. 한국과사학사학회지 3,1: 85-92.
- 朴有秉 1907. 進化論. 共修學報 第二號 高宗十一年 陽 四月三十日. 在日本 東京. 大韓共修會
- 徐椿 1918. 近來의 生物學. 青春 第12호 pp.43-53.

- 신용하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화사상.
- 梁瑞榮 1982. <다윈 100주기 기념 진화론 심포지엄>-오늘의 진화론. 과학과 기술 15권 4호 pp.35-36.
- 양일모 2007.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중국과 한국의 '진화'개념의 형성. 한국학연구 17집 89-91
- 康秉鈺 1907. 動物種族發生의 學說. 共修學報 第二號 光武十一年 陽 四月三十日
- 윤치호 1891. Yun Chi-ho's Diary Vol.2. 국사편찬위원회.
- 尹泰榮 1907. 進化論大意. 夜雷 第1卷 第5號 pp.11-14.
- 李光麟 1979. <韓國開化思想研究>. 일조각.
- 이병훈 2015. <유전자 전쟁의 현대사 산책 > 사이언스북스
- 李炳勛 金辰泰 1994. 西洋 近代 生物學의 國內 導入에 관한 研究- 동물분류학을 중심으로. 한국동물학회지 10,1: 85-95.
- 이병훈 박시룡 1992. Wilson <Sociobiology>y 1975의 축약판 <Sociobiology abridged edition> 동역. <사회생물학 1, II.> 민음사
- 張膺震 1906. 진화학상 생존경쟁의 법칙. 太極學報 4호 7쪽.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 曹喜炎 1926. 進化論을 是認하여야 할가.

-외국 저자

- 梁啓超 1907. 飲水室文集. 上海 廣智書局.
- Bergman J. 2019. Korea, Darwinism, Racism, and War, Answers Research Journal. 12:351-354
- Coyne et al. 1997. Knocking on your brain. CD -Discogs
- Ruse, 2015. Atheism: What everyone needs to know. Amazon.com
- Setoguchi, A. (瀬戸口明久) 2004. 日本における 進化論の 導入. 生物科學 56,1:23-30
- Shimao, 1981. Darwinism in Japan 1877-1927 Annals of Science, 38:93-102
- Spencer, H. 1864. <Principles of Biology>. Williams & Norgate
- Strickberger, M. 2000. <Evolution> Jones & Barlette
- Wallace A. 1889. <Darwinism>. Cosimo